

책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송재홍

한겨레출판사 편집장

자본주의 사회의 주도적인 특징은 사회의 전국면에 걸쳐 모든 재화가 일단 상품이라는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상품은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이루며 여기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를 기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른바 교환가치를 매개로 하는 거대한 상품의 유통구조라 할 수 있다. 이 유통구조의 전일적인 지배 속에서 '책'이라고 해서 어떤 예외적인 특권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책도 하나의 상품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때 상품으로 물건화된 책은 시장경제의 원리상 교환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책도 하나의 상품인 이상 다른 모든 상품이 교환가치에 의해 평가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일반적인 흐름을 외면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항상 독자들의 취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출판사의 입장에서 속된 말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교환가치가 높은 상품(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교환가치가 높다는 것은 소비성향의 가짜욕망을 일정하게 반영한다. 그리고 이 점은 사용가치와는 무관하게 가짜욕망에 길들여진 독자를 자극함으로써 구매력을 확보한다. 물론 책이 하나의 상품으로 물건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렛과 같은 상품과 등가의 차원에 놓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유효하다. 그러나 또한 이 유효한 의문이 책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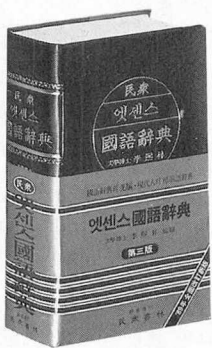
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요즘 서점가를 뒤덮고 있는 소위 '대중서'라고 명명된 일련의 수많은 시집들은 독자들의 가짜욕망을 부추기기 위해 교환가치의 극대화를 노린 전형적인 상품들이다. 이쯤되면 책도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정말 실감난다. 그러나 문제는 책이 상품화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이 얼마나 질이 좋은 상품이나 하는 점에 있다. 여기서의 질은 곧 사용가치의 유무다. 불행하게도 사용가치 제로인 '별 볼일 없는' 시집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럴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사용가치가 높은 '별 볼일 있는' 시집들이 양적으로 우세한 '별 볼일 없는' 저질의 시집들 사이에 묻혀, 결국은 독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도 주지 못하고 '별 볼일 없는' 시집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9월 1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시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70호(10월 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민중서림에서 펴낸 「옛센스國語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번호 독서퀴즈는 국어연구소에서 간행된 「국어오용사례집」(본지 제55호 기사「잘못 쓴 말, 고쳐 써야 할 글」 참조)에 소개된 국어오용사례와 관계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인용된 문장 가운데 굵은 글씨로 표현된 국어오용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 보십시오.

문제1 : 어휘사용 및 표기법의 오류

- ① **윗어른**을 모시고 사니까
- ② 모두가 한복바지 같은 판탈롱에 무릎을 덮는 와이셔츠형 **웃도리**
- ③ 미스 장이 **듣게시리** 일찌구질 씨구 잘도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 ④ 건설공사비가 **현재방식**보다 7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⑤ **영산강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기는 39년 광주 측후소가 생긴 이래 60년 만에 처음이다.
- ⑥ 13일 현재 관리비가 **거의 대부분** 수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2 : 통사구조상의 오류

- ①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수마에** 할런 장성읍은 밤이 되면서
- ② 광주문화원의 존치에 관한 **문제가** 연구중에 있다.
- ③ 다시 말해 **원하는 것만큼** 모두 손에 쥘 수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 ④ 병상의 은사께서는 '자네 왔다' 한마디 하시고는 **고통에** 못이겨 계속 **신음**이셨다.
- ⑤ **독일빵집과** 함께 근무하실 성실하고 의욕적인 분을 모집합니다.
- ⑥ 최호중 외무장관은 "북방외교

는 그동안 상대가 사회주의국가인 점 등을 고려, 초기에 비밀로 **추진해 온** 게 사실이나, 헝가리와 국교수립 등이 어느 정도 성공함에 따라 정상적인 외교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 ⑦ 귀가하던 김정순씨가 20대 청년 **2명으로부터** 예리한 흉기로 등이 찔려
- ⑧ 얼마전 **몹돈**을 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식에 좀 투자를 했고
- ⑨ 그러나 **일을 그런 식으로 몰려와** 항의한다고 풀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일단 타일러서 돌려보냈다.
- ⑩ 그의 합리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에피소드

제66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6호(7월 20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36통, 이중 정답자는 13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

드립니다.

문제1

- ③ 深夜

문제2

- ① 주막집 대문 가까이 있는 방

문제3

- ③ 대동강

당첨자

이경미(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8-10 영동빌라 203호)

유활란(서울시 은평구 응암2동 220-19)

남효림(대전시 유성구 죽동 342-1)

안병하(인천시 남구 주안 6동 인천지방검찰청)

유광열(성루시 중구 을지로 3가 291-30 삼지빌딩 301호)

출판저널

통권 제 68호/1990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鄭鎮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堂秀
편집부장—康鐵柱
기자—李權雨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鎭
업무·광고—李焱天 崔炳天 金允淳 金姬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제)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산사식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서평의원

- | | | | |
|-----|-----|-----|-----|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金炳翼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彥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林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吳 |
| 宋相鼎 | 申福龍 | 懷鏞廈 | 安秉永 |
| 安輝潯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瑋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嘆 | 李萬烈 | 李炳勛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鏡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煒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奭暎 | 鄭雲暎 | 鄭晉錫 |
| 鄭鐵弘 | 曹大鉉 | 崔鍾庫 | 韓相震 |
| 韓勝憲 | 許碩烈 | 洪延善 | 黃鉉產 |
- (가나다 순)

「출판저널」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임금이 날래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의,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제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